

# 인간과 문명의 경계 탐구...현시대 풍자 투영

# CULTURE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 허진 교수, DB금융투자·갤러리 초이서 잇따라 전시 30점 선배...한국화 문맥 이으면서 존재 의미 일깨워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담론은 '노마드' (nomad)다. 현대인의 삶을 유목에 빗댄 표현으로 한국에 정주하지 못한 채 떠돌며 살 수밖에 없는 현대적 삶에 대한 반어로 읽힌다.

이같은 회화정신을 기조로 대학에 재직하며 창작자로서 삶 또한 분주하게 꾸려온 가운데 전시를 잇따라 열고 있다. 주인공은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재직 중인 허진 교수다.

그는 이번 봄을 맞아 두 곳의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두 전시는 갤러리 초이가 기획하고 DB금융투자가 초대 후원한다. 갤러리 초이가 6개월 동안 맡아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번 기획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다.

먼저 DB금융투자알파플러스클럽 27층 VIP라운지에서 지난 5일 개막. 오는 4월 29일까지 연다. 작품작은 15점. 이 전시에는 초이보다 대작들이



허진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더 많이 출품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 전시할 화가로는 3명이 선정된 가운데 1인이 허 작가로 선정돼 전시가 성사된 것이다.

이어 갤러리 초이에서 제38회 개인전이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오라, 나의 영토로'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작품작은 DB금융투자 알파플러스클럽 전시처럼 15점이다.

'이중용합동물'과 '유목동물' 시리즈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일 이 두 전시는 인간과 문명의 경계를 탐구하며 그가 속한 예술적 혈통에 대한 내면의 대화를 도출한 현시대의 풍자가 세련되게 펼쳐진다.

오랜 시간 그가 고민하고 지적하는 문제의식을 독창성 있는 조형언어로 시대적 고발을 하고 있으며, 형상들은 전통적인 답습을 배제하고 화면 속 사물들을 해체하는 등 고심해온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의 대표적 연작은 '유목동물', '이중용합동



'이중용합동물+유토피아'

물'로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생, 과거와 현재의 뒤엉킨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의 사물들은 인간을 단순화시켜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동물과 문명의 흔적들을 세밀하게 병치하며 우리가 잊고 있던 존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일깨워 낸다.

미술비평가 겸 전시기획자인 이강수 전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허진 작가의 작품에 대해 "회면 곳곳에 산재해있는 무수한 색채의 점들과 필획들이 양자역학적인 입자의 파동의 기운생동

적인 현현으로 읽혀진다"면서 "그는 마치 창조주 (composer)처럼 이중용합동물을 유토피아라는 형이상학적인 공간 속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회화적 자장의 리얼리티 속으로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서사적 풍경은 존재적 진실을 품고 있는 시적 풍경으로 आरो세겨질 것"이라고 평했다.

또 초이 갤러리 측은 허 작가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제의 손으로 장식적 미술에 치중하기보다는 굵직한 작품들을 선을 보이는데 집중했다. 한국화에서 상징적 전시이자 의미있는 전시로 한국화의

문맥을 잇는 작가로 전시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김미경 갤러리 초이 대표는 초대서문을 통해 "소치 허련에서 시작해 남부 허건으로 이어지는 전통 회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는 단순한 예술적 유산자가 아니다. 선조들의 시대관과 세계관을 기조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또다른 예술가에게, 그는 회맥의 정체성과 예술적 철학, 예술가로 보는 시대상을 탐구하는 중요한 위치로 그가 지닌 소명은 남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 작가는 그동안 야생동물과 인간, 인공물의 이미지를 한데 등장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찰하고 현대인이 있고 있는 본성(자연)을 일깨우는 작업을 펼쳐왔다.

그가 그려내는 세계에서 실루엣으로 표현된 인간 일반과 섬세하게 묘사된 동물, 그리고 의외성을 안은 채 등장하는 인공 사물은 미묘하게 공존한다. 작업이 쌓여가면서 그의 화풍은 야생과 문명이 질서와 혼돈 속에 조화를 이룬, 특별한 영토를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허 작가는 서울대 예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1990년 개인전 '목시'로 데뷔한 이후 제37회 개인전과 600여회에 이르는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과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제19회 허백림미술상 본상, 용봉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맡고 있다. 개막식은 29일 오후 5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에 김꽃비씨 선정

### 광주서 독립기획자로 활동...시상식 29일 10년후그라운드

광주의 독립기획자 김꽃비씨(사진)가 미래를 이끌 문화기획자를 선정하는 '2025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2년 1회를 시작으로 4년째 맞는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을 발굴하고 조망하며 지지와 연대를 표하기 위해 전국의 현장 기획자들이 만든 상이다.

문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그를 기획자들이 편담을 통해 상금과 진행비용을 마련해 왔다.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기획자들을 추천받은 후 1차 심의를 거쳐 4인의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3월 19일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후보자들이 더 많이 알리고 조망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심사에 반영했다.

올해는 광주 독립기획자 김꽃비씨와 안동시 이공이공 대표 김태욱 2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안동의 복합문화공간 안라과 29일 광주의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에서 열린다.

문화기획자아카데미를 통해 기획자로 일을



시작하게 된 광주 출신 김꽃비 수상자는 (주)쥬스커피나 10년후그라운드 팀장으로 일하며 광주 양림동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마을이무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5년간 진행 된 '1930양림살롱'의 PM을 맡아 지역 주민, 상인, 아티스트들이 상상하는 복합마을축제의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었고 양림동 옛 은성유치원 공간을 리뉴얼해 만들어진 10년후그라운드에서 지역을 주제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현재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며 광주의 오월정신의 현재성을 질문하는 공론장도 운영하고 있다.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관계자는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는 지역, 청년, 민간을 키워드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 문화기획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걷는사람' 시인선 100호 기념 시집...독자와 소통 피해

### '시 읽는 일이 봄날의 자량이 될 때까지' 출간 시인선 1호 김해자 시집부터 99호까지 망라

도서출판 걷는사람이 '걷는사람 시인선' 시리즈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100호 기념 시집 '시 읽는 일이 봄날의 자량이 될 때까지'를 최근 출간했다. 걷는사람 시인선 1호(김해자 시집)는 2018년 4월 25일 세상에 나왔고, 99호(휘민 시집)는 2024년 8월 31일에 출간돼 지금까지 모두 98명의 시인이 참여했다. 다만 정택재 시인이 '걷는사람 시인선' 이름으로 두 권의 시집을 상재해 99명이 아닌 98명이다. 이번 시집은 시인선 1호에서 99호까지 함께 해 온 시인들의 시집에서 대표작 1편을 엄선해 실었다.

걷는사람 시인선은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리얼리즘 시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 왔다"는 평을 받은 김해자 시인의 '해자네 점집'을 필두로 송진권 시인의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안상학 시인의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 박남준 시인의 '어린 왕자로부터 세드 무비', 김명기 시인의



더 부여한 것. 처음에는 다소 이질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과감하다' '파격적이다'라는 반응이 연이어 들려왔고 저자의 특성, 화자의 어조와 시의 분위기를 세고 조형으로 표현한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국내 출판사들의 시인선 중 여성 시인이 '1번' 자리를 차지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출판사 걷는사람은 최근 시인선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김해자 시인의 네 번째 시집 '해자네 점집'을 첫 시집으로 내놨다.

시집은 1부 '삼시미고 읽다 까무룩 잠들면', 2부 '밤새 우는 아기를 안은 창백하고 질긴 얼굴', 3부 '왜 아직 거기에 있는 걸까 붉은 노을은', 4부 '한 발 나갔다가 두 발 물러서는 사랑'이라는 부제로 구성돼 있다.

걷는사람 관계자는 시인선을 내용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히 해 가는 좋은 시인들과 시를 발굴하고 그로써 오늘날 우리 문화이 간과하고 있는 가치를 일깨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독자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실전 문화기획' 배우고 싶은 이들 모여라

### 청년문화허브 '호랭이' 교육생 내달 7일까지 모집

예비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실전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가 5기 교육생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사)청년문화허브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호랭이(학교장 정두영)은 실전 문화기획 능력을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시작해 올해 5기를 맞았다.

문화기획자 지망생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현장 기획자, 기획 능력이 필요한 예술인 등 창작자, 문화예술 전공 대학(원)생 등 실전 문화기획을 배우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4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청년문화 거점공간 호랭이소굴(동구 금남로2가 2-3)에서 진행된다. 기획 입문과정(문화기획자의 삶·역할·활동분야 등), 기획 실무(기획서 작성·예산 확보·

홍보·행정/회계·단체설립 등), 프로젝트 심층, 현장 문화활동 연결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여자에게는 프로젝트 실습비, 아지트 공간, 최우수 참여자 2명 시상상 수여, 수업 후 실제 문화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스트 과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blog.naver.com/culturehub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호랭이 1~4기 수료생들은 포스트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포스트 과정을 통해 4기 수료생 3명(김도희, 정주원, 최형선)이 의기투합해 함께 단체 설립과 공모사업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다수가 전시 및 공연 기획 단체, 시민문화단체, 독립서점, 문화 프로젝트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하우편 예술놀이터' 운영

### 3~12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욱)은 3월부터 12월까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ACC 하우편(How Fun)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 'ACC 하우편 예술놀이터' 모습

이번 예술놀이터 운영은 지난해 전당재단과 남원시가 콘텐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두 기관은 오는 29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어린이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9종을 진행한다. 3월에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자연과 인간의 소통과 공존을 생각하며 친환경 작품을 만드는 '초록이 숨 쉬는 공간', 아시아 여러 나라의 건축물을 탐색하고 3차원 펜을 활용해 상상 속 도시를 창작하는 '각양각색 건축도시'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는 매월 10일부터 남원시청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로제, 빌보드 싱글 14위·앨범 52위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25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로제와 팍사브 브루노 마스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는 14위로 22주 연속 '핫 100'에 진입했다.



지난해 10월 '핫 100' 8위로 처음 진입한 '아파트'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초 반등해 최고 3위를 기록하는 등 장기 흥행하고 있다.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제니의 솔로 1집 '루비'가 20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진입했다. 로제의 솔로 1집 '로지'는 52위, 리사의 솔로 1집 '얼터 에고'는 125위에 자리했다.

걸그룹 트세라피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핫'은 앨범차트 9위로 데뷔했다.

트세라피의 '빌보드 200' 1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